The Korean Journal of Dance Studies, Vol.100, No.3(2025), pp. 133-134.
https://doi.org/10.16877/kjds.100.3.202509.133

무용예술의 이해를 돕는 안내서

A Guide to Understanding Dance Art

김주희(Kim, Joohee)*

노영재(2024). **발레 너머 예술: 발레, 예술, 문화를 향한 비평적 시선**. 현북스
노영재(2025). **현대 무용이론의 지형: 영미 무용학을 중심으로**. 현북스

I. 자기성찰적 탐구의 시

노영재 저자의 책이 연이어 출간되었다. 『발레 너머 예술: 발레, 예술, 문화를 향한 비평적 시선』(2024)은 무용 예술의 이해를 돕는 기초 교양서라면 『현대 무용이론의 지형: 영미 무용학을 중심으로』(2025)는 심도 있는 무용학의 기반을 마련하고 무용학 담론을 확장할 수 있는 전문서이다. 서문이 특히 인상적인데, 조명 하나가 켜져 있는 무대 위에서 담담하게 밝히는 독백을 듣는 듯하다. 부산과 서울, 미국에서 쌓은 저자의 학문 여정은 개인의 기록과 경험을 넘어 무용의 과거와 현재가 고스란히 담긴 시대 문화의 가치를 담아내고 있다.

『발레 너머 예술』 'I장 발레: 그 소소한 기억의 역사'는 저자의 성장 과정에서 기억되는 한국의 근현대 무용사의 흔적과 한국 현대사의 전환점 이후 변화되는 무용 교육의 조각을 자연스럽게 엮어내면서 시작한다. 무용을 전공하는 독자뿐 아니라 무용을 전혀 모르는 독자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공감과 자기 투영이 시작되고, 깊은 정서적 울림과 여운을 안고 책장을 넘기게 된다. 이 책은 각 장마다 음악, 미술, 드라마, 스크린, 역사, 패션과 만나는 발레를 소개하며, 다채로운 춤 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선을 만화경처럼 펼쳐 보인다. 각 장마다 삽입된 사진과 그림은 책의 내용을 보다 입체적으로 만들어 주며 춤을 자주 접하지 못한 독자들에게는 쉬운 이해를 돕는다.

II. 심도 있는 무용학습을 돕는 디딤돌

무용학을 배우고 있거나 무용 연구자 혹은 비평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발레 너머 예술』과 『현대 무용이론의 지형』을 같이 읽기를 추천한다. 『현대 무용이론의 지형』은 인문, 사회학 분야로 확장된 무용 이론의 발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 안내서이다. 영미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한 대표 학자들과 그들의 이론, 주요 저작 및 논문 등을 전방위적으로 소개한다는 점에서 무용학 심화 과정 교재로 활용하기에도 손색이 없다. 미학, 철학, 인류학, 문화연구, 소매틱, 포스트 휴머니즘이라는 거대한 학문 뿌리 아래에

* 성균관대학교 하이브리드미래문화연구소 선임 연구원, sunjang33@gmail.com

www.kci.go.kr

몸을 근간으로 발전된 춤이 만나 실천적·사유적 학문으로 꽃을 피우는 과정을 담아낸다. 그리고 다양한 담론의 영역으로 가지를 뻗어 나가는 줄기들을 읽다 보면 어느샌가 우리는 '무용 이론'이라는 숲을 마주하게 된다.

비판적 무용학(Critical Dance Studies)의 발전을 주도한 캘리포니아 대학교 리버사이드 캠퍼스(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에서 접한 학술 환경과 무용 학제 간 연구(Interdisciplinary research)의 대가 수잔 리 포스터(Susan Leigh Foster)의 지도를 받은 저자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통찰력 있는 연구 주제를 끊임없이 소개해 왔다. 필자도 박사학위 과정에서 저자에게 수업을 받으며 복잡하게 얽힌 수 많은 정보들이 다림질하듯 정리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학문적으로도 자극을 받아 즐거웠던 수업, 기다려지는 수업으로 기억한다. 무엇보다도 이 책은 동시대 무용예술 현장과 더불어 디지털 기술과 무용치료, 포스트휴먼으로 확장되는 최신의 무용학 주제와 함께 주요 학자들의 최근 연구동향, 연구의 중요성 및 공헌도, 주요 저서 목록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어 심도 있는 학습연결의 편의를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현대 무용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유용하다.

III. 춤을 쓴다는 것

저자는 부산의 춤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비평가이다. 저자의 비평글은 2023년 발간된『춤, 언어의 춤』(2023)에서 볼 수 있는데, 부산 지역의 춤 발전에 따뜻한 애정을 갖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오랜 기간 동안 비평 활동을 한 만큼『발레 너머 예술』은 비평적 시각을 담지하고 있으며,『현대 무용이론의 지형』은 무용비평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무용학과 수업에는 학부, 대학원 과정에서 비평 수업이 필수로 개설되어 있다. 그 만큼 전문 무용인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 비평적 시각을 견지한 예술가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학습 과정이기 때문이다. 무용학과 전공 외에도 대학 교양수업, 문화 센터 같은 대중 강좌에서도 무용 감상 관련 수업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무용 공연에서 마련되는 '관객과의 대화'에서 쑥쓰러움을 이겨내고 질문하는 관객들을 보면 일반 시민들도 춤에 대해 궁금해하고, 춤을 제대로 감상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에는 마땅한 비평 교재가 부재한 상황이었는데, 마침『현대 무용이론의 지형』의 'II. 비평과 춤'이 교재 역할을 해준다. 무용비평의 역사부터 유형과 접근법, 오늘날 뉴미디어 시대로 인해 변화된 온라인 비평과 인공지능 시대의 비평 등에 대해 잘 전달해 주고 있어 무용학과에서 비평 수업 교재로 활용하는 것 외에도 일반 시민 강좌에서 기초적인 감상 가이드로 활용해도 유익한 자료가 될 것이다.

"양적 팽창이 있어 온 만큼 질적인 발전도 필요하다"는 평론가들의 성토 섞인 90년대의 글을 본 적이 있다. 작금의 한국 무용 현장은 공연 풍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종 공연예술 축제와 더불어 무용단과 개인들의 공연까지 밀려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무용인들이 관객에서 다가설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춤을 추고, 춤을 배운 경험을 친절하게 나누는 것일 것이다. 노영재 저자의『발레 너머 예술』은 무용을 알고 싶은 독자에게 무용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되어줄 것이며 무용학이라는 망망대해를 나아가야 하는 학생들에게는『현대 무용이론의 지형』이 나침반이 되어줄 것이다.

www.kci.go.kr